

'갤럭시노트7' 출시... '패블릿' 경쟁

삼성전자 스마트폰시장 1위 굳히기 나서... LG V20·아이폰7플러스 다음달 출시 예정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출시로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중국 3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패블릿(Phablet·대화면 폰)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패블릿은 폰과 태블릿의 합성어로 화면크기 5~6인치대 대화면폰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19일 5.7인치의 갤럭시노트7 판매에 공식 돌입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대화면 폰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노트7은 패블릿 시장을 개척한 갤럭시노트 시리즈의 6번째 제품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2600만대 이상 팔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갤럭시S7 시리즈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 모델명에 숫자 6 대신 7을 붙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출시한 갤럭시S7 시리즈와 갤럭시노트7을 앞세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확고한 1위 자리를 굳힐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일 경쟁사

아이폰의 인방인 미국 뉴욕에서 휴대 인식, 방수·방진 등 차세대 기술을 담은 갤럭시노트7을 공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출시 다음달 선보일 예정인 LG전자 V20, 애플 아이폰 새 모델 출시에 앞서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5.7인치 대화면폰인 V20을 회심의 역작으로 내놓는다.

LG전자는 다음달 7일 서울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패블릿 신제품 LG V20을 공개하고 하반기 시장 공략에 나선다. V20은 지난해 10월 초 출시한 V10의 후속작이다.

V20은 전작의 장점인 넓은 화면과 고성능 오디오 기능 등을 계승하면서 사용성과 편의성을 한 단계 높인 제품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LG전자는 구글과의 파트너십으로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인 '누가'를 처음 탑재한다.

애플은 아이폰7플러스를 다음달에



갤럭시노트7

선보일 예정이다.

아이폰7플러스는 5.7인치 대화면에 듀얼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폰 단자 제거를 통해 방수기능이 추가되고, 두께도 한층 얇아진다. 애플은 다음달 6일경 아이폰 7시리즈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애플이 2014년부터 대화면폰으로 판매장에서 재미를 본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아이폰7 플러스가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중국 화웨이는 갤럭시노트7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일 첫 패블릿 야노트8을 발표했다.

이 제품은 6.0인치의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화웨이가 자체 고안한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지문 인식 센서, 13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4500mAh 대용량 배터리 등을 장착했다. 가격은 30만원 초·중반대로 경쟁 제품에 비해 저렴하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다음달 LG전자와 애플의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마케팅 역량을 총동원해 노트 판매에 집중했다"며 "특히 대화면 스마트폰의 수요가 집중되는 한국·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움직임이 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17시간 밤새며 즐겼어요" 갤럭시노트7 첫 출시에 반응 '폭발'

19일 오전 서울지하철 강남역 11번 출구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개통 행사를 위해 SK텔레콤 T월드 강남 직영점으로 향하는 행렬과 출근길 인파가 뒤섞이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오전9시부터 열린 갤럭시노트7 개통 행사에는 100명이 넘는 개통 예정자가 몰려들어 큰 혼잡이 빚어질 정도였다. 이날 SK텔레콤에서 갤럭시노트7을 가장 먼저 개통한 주인공은 정지훈(28)씨였다. 소풍물을 운영하는 정씨는 전날 오후4시부터 17시간가량 매장 앞에서 기다린 끝에 갤럭시노트7

은 물론 UHD TV 등의 경품을 손에 쥐었다.

정씨는 갤럭시노트7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블루코랄 색상을 택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 사전 예약자의 절반은 블루코랄을 골랐다.

정씨는 "갤럭시노트7 블루코랄 색깔과 옛지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결정했다. 휴대인식 기능에도 호기심이 있었다"며 "갤럭시노트7 옛지를 만져보니 그립감이 좋아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날 SK텔레콤은 이동통신3사 중

유일하게 갤럭시노트7 행사를 열었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신규 단말 교체에 지원하는 'T갤럭시 클럽'을 운영하며 공동 마케팅을 펼쳐왔다.

개통행사에는 SK텔레콤 모델인 걸 그룹 헬로비너스의 나라, MBC '무한도전'의 웹툰 프로젝트에서 활약하는 연예인 박명수 및 웹툰 작가 이말년과 기안84가 참석했다. 두 웹툰 작가는 갤럭시노트7의 S펜을 활용해 개통 고객 10명에게 직접 캐리커처를 그려 전달했다. /뉴스

'7월 생산자물가지수' 7달만에 하락

저유가·전기료 감면 영향... 98.95로 전월 99.02 비 0.1% 하락

7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1% 감소해 7달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저유가와 정부의 전기요금 감면이 생산자물가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6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는 98.95로 전월(99.02)과 비교해 0.1%

하락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 저유가로 인해 6년만에 최저 수준인 98.42까지 떨어졌으나 4월 들어 98.67로 반등하기 시작, 6월까지 석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다시 유가가 떨어지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선행한다.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7월 생산자물가지수를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2.6%), 전기 및 전자기기(-0.6%)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서비스 생산자물가지수는 음식점, 숙박 등이 올라 0.1% 상승했다.

농림수산물(4.2%)을 중심으로 0.6% 올랐고, 전력·가스·수도 는 전월 대비 2.0% 감소했다.

특수분류별 생산자물가를 보면 식료품과 신선식품은 각각 0.1%, 5.4% 상승했다. 에너지는 2.0%, IT는 0.4% 내렸다.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포괄하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93.68로 전월 대비 0.4% 내려갔다.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를 결합한 총산출물가지수는 94.23으로 전달보다 0.6% 감소했다. /뉴스

심사 없이 '바로OK보장보험' 가입

NH손해보험, 무심사·일반심사형... 75세까지 가입

NH협손해보험은 별도의 심사나 건강검진 없이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비경신형 무심사보험 '무배당 바로OK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일반상해사망 최대 2000만원, 질병사망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사망시 장례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추모비와 장례서비스까지 보장된다.

또 무심사형과 일반심사형 2종으로 구성해 고객의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무심사형은 만성질환이나 특정 질병 등으로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이 거절된 고객도 심사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건강한 고객의 경우 일반심사형 가입을 통해 무심사형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기간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5년 만기 100만원, 10년 이상 20년 미만 150만원, 20년 만기 이상 200만원을 정액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



무한도전 VR영상 즐기세요 KT는 올레 tv 모바일에서 MBC '무한도전' 미국특집 편과 9월 신규 드라마 '쇼핑왕 루이' 메이킹 영상을 360도 VR로 제공하고 시청 고객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생명 중심 '금융지주사' 가속도

삼성증권 지분을 19%까지 확대... 비금융 계열사 지분 줄여야

삼성생명 중심의 삼성그룹 금융 지주회사 설립 밀그림이 그려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증권 지분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증권에 대한 영향력이 19% 이상으로 확대됐다.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이 최대주주(19.3%)며 현재 ▲삼성자산운용 99% ▲삼성카드 72% ▲삼성화재 15% ▲삼성증권 11% 등을 가진 곳이다.

이는 삼성생명이 다른 금융사 계열 지분을 매입해 금융지주사 편입을 위한 초석을 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장회사 지분 30%(비상장

50%) 이상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대주주여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가 되려면 금산분리에 따라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5%까지 줄여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8% ▲호텔신라 6% ▲에스원 6% 등 금융회사 외의 그룹지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 등의 지분 매각 없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정거래법이 개정으로 인한 금산분리 완화다.

정치권에서는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이 법이 발효될 경우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 또 삼성금융계열사로 이어지는 중간 금융지주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뉴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